

# Introduction to the NT

신약개론

1

## *Introduction to the NT*

### 데살로니가전서

- 초기에 가치절하 된 이유
  - 대주제( '믿음으로 의롭다함' ) 부재
- 상황 문서(letters)로서 가치
  - 독자들이 있을 때 사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
  - 공동체
- 젊은 바울의 목소리
  - 칭의 논쟁을 사상 전면에 부각시킨 위기로부터 민감하지 않았던 바울의 목소리 청취 가능

2

***Introduction to the NT***

**배경**

- 50/51년경 저작
  - 로마에 복음이 처음 전해지던 시기 (예루살렘으로부터)
  - cf. 로마서 저작 57/58년 경
- 사도행전과의 평행
  - 행 17:2, 세 안식일
  - 17:5- 야손의 집 침입 난동
- 빌립보서와 평행
  - 빌 4:16, 빌립보 교인의 연보 회상

3

***Introduction to the NT***

- 인적 분포
  - 여러 민족 혼합
    - 만신전, 황제 숭배
  - 대부분 노동자 계급(4:1)
  - 회당 설교를 통해 회심, 파급
  - 1:9, '우상을 버린' 회심자에게 쓴 편지
  - 2:2, 데살로니가에서의 '큰 싸움'
    - cf. 행 17:5-10
    - 군중들을 책동해 바울에 대항
  - 2:17, 바울 재방문을 소망
  - 3:2-5, 데살로니가 성원들의 곤경과
  - 2:14-15, 자기네 동포들(이방인)로부터 받고 있는 고난

4

**Introduction to the NT**

**일반적인 내용**

-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교인을 열려하는가
  - (다정한) 권면의 편지인가?  
강화(強化) 편지인가?
  - 고린도에 있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인이 고통 중에도  
동요되지 않고 주님을 굳게 붙잡고 있었다는 소식에 안도
  - 이교적 제의 (cf. 4:4)  
“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 
자기의 아내(스큐오스) 대할 줄을 알고”

5

**Introduction to the NT**

- 박해/ 죽은 자 부활 언급의 배경
  - 회심으로 인해 공적인 종교를 버림
  - 행 17:7에 나타난 고소 → \* 강력한 로마 시민제의  
→ 왕으로서 예수에 대한 바울의 설교에 나타난 문제
  - 바울이 떠난 직후 신자들이 죽음을 당하였는가?  
→ 4:16의 배경  
→ 고후 11:23-27 회상에서
  - 목회적 권고인가?
- 파루시아
  - 전서 4회, 후서 3회 (바울 전체 사용의 1/2)
  - 유대인의 묵시 문학 (x) 헬라적 개념/ 황제의 엄숙한 도착
- 계시(아포칼립시스), 나타나심(에피파네이아), 주의 날

6

***Introduction to the NT***

- 사도권
  - 자신을 사도나 그리스도의 종으로 밝히지 않는다
- Anti-Semitism
  - 2:13-16, “주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”
    - 저작권 문제
    - (p. 657 저작권 반대 논증, 지지 논증 숙고할 것)
- 재림
  - 하나님의 나라 임함은 사람을 통해서는 불가능
  -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
  - 2천년 후의 재림에 대한 기대 → 휴거 (?)

7

***Introduction to the NT***

- 바울은 자기가 이러한 특별한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.
  - ←----- Letters
  - 바울이 사역했던 방식
  - 바울의 자기 이해
    - \_\_\_\_\_ 기독교
    - \_\_\_\_\_ 교회
    - \_\_\_\_\_ 공동체의 개념

8

**Introduction to the NT**

**갈라디아서**

- 가장 바울적인 것
- 분노 / 열정(고린도 후서에 필적할 만한 서신)
- 아모스 예언자적 = 외교적 수완 포기
- “사랑하는 서신이다” (-루터)
  -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바울의 거절에서
  - 루터 자신이 선행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거절 지지 발견!
- 초대 기독교 재구성에 대한 주요 실마리 – F.C. Baur

9

**Introduction to the NT**

**배경**

- 55년
- 바울 자신이 설립한 교회
- 설립 계기
  - (바울 자신의) 육체의 약함(4:13)
  - 이적 행함 (3:5)
- 집필 동기
  -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얼마간 자신들을 속였다고 여긴 데에 따른 (?)

10

**Introduction to the NT**

■ **일반적인 이해**

- 신약성경의 신성함, 대사도로서 바울
- ‘다른 복음’ 설파자들의 (당연한) 어리석음.

■ **재구성**

- 1)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난 후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당도하였다.  
(바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왔을까?  
단순히 복음 전파 여행에서 왔을까?)
- 2) 복음을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를 위해 선포한 사실로서는 일치

11

**Introduction to the NT**

- 3) 그러나 어떻게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를?
- 4) 바울의 가르침 → ‘예수의 믿음’ 을 통하여 의롭다고 인정  
다른 복음 → 의롭다함은 율법의 일들을 준수함이 없이는  
완성되지 않는 것.
- 5) 핵심적인 요인 → 할례, 절기 준수
- 6) 유대인은 사라(자유하는 아내)를 통한 아브라함의 후손  
(할례의 언약)  
이방인은 하갈(노예 아내)을 통한 아브라함 후손  
→ 교시: “이제 이방인이 아브라함을 닮아 할례를  
행하고 율법의 일들을 행한다면!”

12

***Introduction to the NT***

- 7) 그런데 이미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가져오지 않았던가?!
- 8) 빠른 회심자를 만들기 위해 바울은 부분적으로만 전하다!
- 9) 아브라함의 언약을 공유한다는 것은 할례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르지 않았던 것!
- 10) 게다가 바울은 그들을 율법에 대한 지도 없이 방치해 두고 떠났으며,
- 11) 그 바람에 “악한 성향” 과 육체적 욕망의 희생물이 되게 하고 말았다.

13

***Introduction to the NT***

- 12)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에게 어찌하여 죄가 여전히 자신들 가운데 만연하고 있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.
- 13)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말하기를, “바울은 복음을 뒤늦게 알았으며, 원사도들이 예수를 알았던 것처럼 주님을 알지 못하였다”고 알려주었다.
- 14) 예수님도 그 자신이 할례를 받으셨으며 결코 어느 누구도 할례에서 면제해 주지 않으셨던 것이다.
- 15)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원사도들은 절기들과 음식을 규례들을 잘 지키고 있다.

14

**Introduction to the NT**

**칭의 · 믿음 · 자유**

- 다른 복음은 없나니!
- 천사라도 저주를 (1:8)
- **칭의**(δικαίωσις,  
동사 δικαίωω /의롭다고 하다)
  - 갈라디아인들은 율법 준수 없이 성령을 받았다(3:1-5)
  -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열국이 복(창 17:10, 14)
    -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믿음을 통해 성령 받은 전거
  - 승인 된 유언은 후대의 추가로 무효화 될 수 없다(3:15-25)

15

**Introduction to the NT**

- 대적자들은 아브라함, 하갈, 사라의 교훈을 잘못 인용했다
- 노예인 하갈: 이방인의 후손(x)  
지상의 예루살렘(o)
- 자유로운 여인 사라: 하늘의 예루살렘
- 육체의 일은 성령의 일과 대조 (5:19-26)
- “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”
  - 할례는 이방인에게 칭의를 가져다 줄 능력이 없다는 확인

16